

호남인 애환 깃든 '서울 강남터미널' 옮긴다

호남인들의 애환이 담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의 서울 외곽 이전설이 지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터미널'로 더 알려진 현 고속버스터미널은 지난 1975년 이후 31년동안 서울을 오가는 호남 사람들의 희망과 좌절을 함께 지켜봐왔다.

서울시 서초구청(청장 박성중)에 따르면 서초구는 관내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시외곽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현대화된 업무와 상업·주거시설이 들어선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같은 복합상업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초구, 교통체증 이유 시외곽 이전 추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운데 경부선터미널은 금호산업이 대주주로, 천일고속 등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연인원 76만여 명이 이용한 센트럴시티내 호남·영동선터미널은 울산그룹 소유다.

현재 서초구가 고려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후보지는 오는 2010년 신분당선(서울 강남~경기도 성남 정자간 18.5km 구간)의 복선전철이 완공되고 경부고속도로와도 가까운 청계산 아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곳은 현 위치보다 남쪽에 위치해 서울 도심과는 멀어지지만, 고속버스 차량 접근 시간이 줄어드는 이점이다. 지하철 3·7호선과 조만간 개통될 9호선이 만나는 요지에 있어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터미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내년께 타당성 분석 용역작업과 함께 세미나를 거치고 터미널 사업자들과 협의에 들어갈 것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초구의 이전계획에 대해 서울시 측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터미널 시설의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이라며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지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터미널 후보지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면서 "만약 이전한다면 남부터미널과 센트럴시티의 호남·영동선도 같이 가야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안순일·윤영월씨 내일 결선

광주시교육감 선거

민선 4기 광주시교육감은 안순일(61·광주동부교육장) 후보와 윤영월(55·광주서부교육장) 후보 간의 25일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23일 실시된 광주시교육감 1차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안순일 후보가 총 유효투표 수 3천228표의 44.5%인 1천436표를 얻어 1위를, 기호 4번 윤영월 후보가 28.6%인 923표를 획득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관련기사 8면〉

그러나 안 후보가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 후보와 윤 후보 간에 25일 결선 투표를 하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1차 교육감 선거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거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광주시 교육감 선거 1차투표 결과

후보	득표	득표율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구
안순일	1436	44.5%	160	271	204	513	288
윤영월	923	28.6%	63	169	201	206	284
윤봉근	443	13.7%	27	92	55	117	152
김창현	426	13.2%	26	85	89	148	78
무효			1	2	1	0	0

하게 돼 있다.

25일 치러질 결선투표는 1차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치러진다.

기호 3번 윤봉근(50·광주시교육위원) 후보는 13.7%인 443표를 얻어 3위를, 기호 1번 김창현(61·전 광주교대 총장) 후보는 13.2%인 426표를 획득해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안순일 후보는 승리를 장담했던 동부교육청 관할 구역인 동부와 북부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며, 상대 후보인 윤영월 후보의 강세가 짐작됐던 서남·광산구 등 서부교육청 관할 구역에서도 윤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광주시교육감 선거 1차에는 선거인단 3천420명의 94.6%인 3천234명이 투표에 참가해 당초 예상했던 투표율 97%를 밑돌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내년 빛고를 광주시 만납시다

23일 오후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폐막식에서 김영경북지사가 전달한 대회를 김경길(가운데) 대한체육회장이 받아 내년도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박경태(오른쪽)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진=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23일 오후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폐막식에서 김영경북지사가 전달한 대회를 김경길(가운데) 대한체육회장이 받아 내년도 개최지인 광주광역시 박경태(오른쪽)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진=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北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제외’ 더욱 확고”

한미FTA 美대표 “한국산 인정 못해”

월드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협상 시한에 대해 “연내 타결이 목표지만 늦어도 내년 초 타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 4차협상

첫날인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이 내년에 만료된다고 해서 협상을 서두르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언급,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는 쌀 협상에 대해 “아직 협상이 많았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협상 마지막에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필뉴스

압림

True live in Korea

이승철 콘서트

‘라이브와 함께’ 이승철의 ‘트루 라이브 인 코리아(True live in Korea)’ 콘서트가 12월 16일 광주영주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2002년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58회 공연 연속 매진, 20만명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이승철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을 열광시켜왔습니다. 1985년 데뷔 이래 20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승철은 이번 콘서트에서 데뷔곡 ‘희아’부터 최근 발표한 8집 수록곡 ‘소리쳐’까지 20여장의 앨범에 담긴 히트곡을 열창할 예정입니다. 감미롭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이승철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겨울밤의 콘서트 라이브에 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7시30분
- 장소: 광주영주체육관
- 주최: 광주일보사
- 주관: MRAIN (주)메이엔터테인먼트
- 공연문의: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R석 66,000원, S석 55,000원, A석 44,000원

안보리 北제재위 첫 회의

제재목록 주말까지 작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관련기사 3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제재위는 이번 주말까지 구체적인 북한 제재 목록을 만들어 안보리에 보고하기로 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안보리는 20일 제재위원장에 피터 버리안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 부위원장에 아르헨티나와 카타르 대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집행부

인선을 마쳤다.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는 수출입 금지 품목 등 북한 제재의 실질적 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결의 이행과 관련된 회원국의 조치들을 안보리에 제출토록 한 결의 1718호 11조에 따라 내달 14일 이전에 북한 제재 이행상황을 안보리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첨단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부영이 사랑하는 광주첨단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35평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분양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는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아파트를 만나보세요.

부영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아파트! 35평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분양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는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아파트를 만나보세요.

062-368-8322 (주)부영

부영 '사랑으로' 부영 6·7차 임대분양!

부영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영 6·7차 임대분양! 35평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평형의 임대분양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자랑하는 '사랑으로' 부영 임대분양 아파트를 만나보세요.

062-368-8322 (주)부영